

조기졸업생 대입수상실적 변경 신청기간 안내

(자료제공: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 044-203-6291)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이 적용됨에 따라 '19년 고교입학생부터 대학 진학 시 수상실적인 학기당 1개씩 제공됩니다. 이에 2021년 초 조기 졸업한 학생들 중 2022학년도 대입수시모집에 지원하는 학생은 아래방법으로 본인의 수상실적을 변경할 수 있으니 대입수상실적 변경선택을 희망하는 졸업생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대입수상실적 변경, 잊지 말고 2021.9.7.(화)까지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을 적용받는 졸업생* 중 대학에 제공되는 수상실적 변경을 희망하는 자

* 학생부 신뢰도제고방안은 '19년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21년에는 조기졸업자만 해당함

신청방법

졸업한 학교에 직접 방문하거나 가까운 학교에서 '팩스민원'을 통해 접수

○ 방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신분증) 제출 → 변경사항 반영 후 확인서 발급

※ 확인서 확인란에 담당자 및 본인 날인 후 각각 보관

○ 팩스: 접수기관 방문 → 팩스민원신청서 전송 → 대조·확인 및 신청사항 반영(처리기관) → 담당자 서명 후 팩스 전송 → 접수기관 교부

※ 단, 접수기관은 확인서 교부 시 민원인의 서명을 받은 뒤 처리기관에 FAX로 재송부 (처리기관은 5년간 확인서 별도 보관)

접수기간

○ 수시모집 : '21. 08. 02.(월) ~ '21. 09. 07.(화) 16:00까지

○ 정시모집 : '21. 12. 01.(수) ~ '21. 12. 27.(월) 16:00까지

유의사항

- 본 민원서비스는 '21~'22에만 제공되는 것으로 대상은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에 따라 학기당 1개의 수상실적만 대학에 제공되는 졸업생임
- 수상실적 변경을 미신청한 졸업생의 대입수상실적은 이전 학년도 신청 내용과 동일하게 생성되어 대학에 제공됨

(졸업생용)

대입전형자료 수상실적 변경 신청서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적사항	출신고교			
	입학연도	년	졸업연도	년
대입제공 희망 수상실적	대입전형자료 제공희망 수상실적			
	학기	수상명	등급(위)	수상연월일
	<i>예시</i>	<i>과학탐구대회</i>	<i>우수상(2위)</i>	<i>2020. 5.28.</i>
	1-1			
	1-2			
	2-1			
	2-2			
	3-1			
	3-2			
유의사항	<p>○ 대입전형자료를 위한 수상실적은 <u>학기 당 1개씩만 선택가능</u></p> <p>○ 본 신청은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의 적용을 받는 <u>졸업생('19~'20년 입학)의 대입전형자료 생성을 위한 것임</u></p> <p>※ (중요) 2019~2020년에 입학한 졸업생 중 <u>조기졸업한 학생</u>의 경우 <u>3-1, 3-2학기 수상실적을 기재하지 않음.</u></p>			
위와 같이 수상실적 제공을 요청드리니 대입전형자료에 상기 내용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신청인 (인)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학교장 귀하</div> </div>				
<input type="checkbox"/> 구비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2021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자료제공: 통일부 홍보담당관실 ☎ 02-2100-5915)



2021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조사기간 2021년 4월~10월

2021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는
향후 남북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 및 교류에 대비하여
기존 신청 정보를 현행화하고 이산가족 교류 실태 및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이산가족의 오랜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2021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조사원의 전화조사 또는 방문조사에 응답

- 조사원이 조사기간 중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휴대폰이나 자택으로 전화 또는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
- ※ 가구 방문 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콜센터

02)2056-3388
오전 9시~오후 9시(월~금)

홈페이지

남북이산가족찾기
<https://reunion.unikorea.go.kr>

남북이산가족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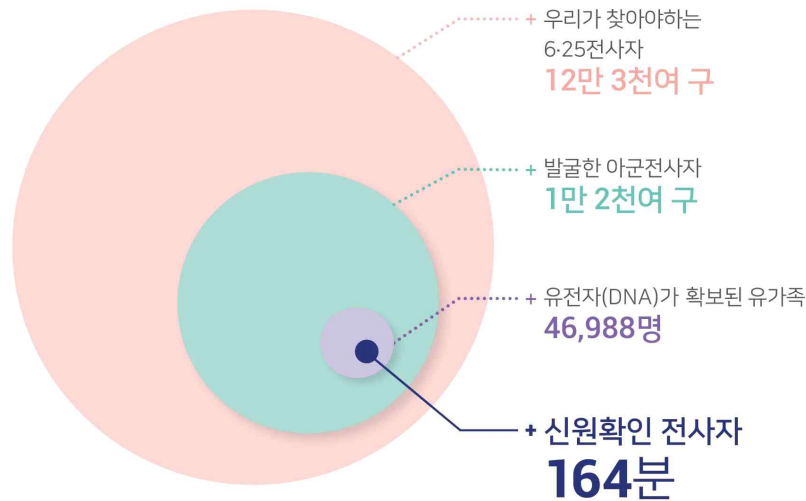
6·25전사자의 가족을 찾습니다.

(자료제공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계획운영처 ☎02-811-6526)

“6·25전사자의 유가족을 찾습니다”

Q. 6·25전쟁이 끝난지 70여 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전사자의 유해를 찾는건가요?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아직도 이름모를 산야에 홀로 남겨진 12만 3천여 구의 호국 용사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유가족의 유전자(DNA) 시료가 필요합니다.



발굴된 아군전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전사자 유가족의 유전자(DNA) 시료채취가 절실합니다.

신원 확인 시 **1,000**만원 포상금 지급
1577- 5625 (오!6·25)

병영생활 고충상담, 성폭력 · 군범죄 신고/상담
「국 방 헬 프 콜 ☎ 1 3 0 3」

(자료제공: 국방부조사본부 ☎ 02-748-1973)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국방헬프콜
1303



병영생활 고충,
군범죄 · 성폭력,
방위사업비리 신고/상담



24시간 365일! 「국번없이 ☎1303」
군전화, 공중전화,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든 전화로 신고/상담 가능



사이버 신고/상담은

국방 헬프콜

검색

Ch

국방헬프콜 +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02-2100-4077)

- 오는 8월15일은 제76주년 광복절입니다.
 -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 각 가정에서는 8.15.(일), 07:00부터 18:00까지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 ※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 수 있음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겁니다.

《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겁니다.
 -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 자녀와 함께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 태극기의 구입 》

-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행동요령 홍보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 ☎ 044-205-5232)

반복되는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자연재난 국민행동요령

국민행동요령
보다나은 정부

태풍 호우 이렇게 행동하세요



하천 급류

호우·태풍 등으로 하천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
하천 주변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차량 침수

조금이라도 침수된 지하차도와 도로는
절대 지나가지 않습니다.



강풍에 의한 낙하물

유리창 및 건물 간판 근처는 강풍에 의한 낙하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가급적 공터나 건물 안으로 대피합니다.



산사태

산사태 위험이 있는 산지 주변의 야외활동(등산, 캠핑 등)은
자제하고, 대피 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세월교·교량 횡단

세월교나 소규모 교량이 물에 잠긴 경우
절대 건너지 않습니다.



물꼬

호우·태풍 특보가 발효된 경우
물꼬를 보러 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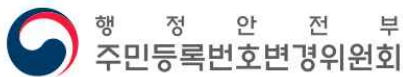


행정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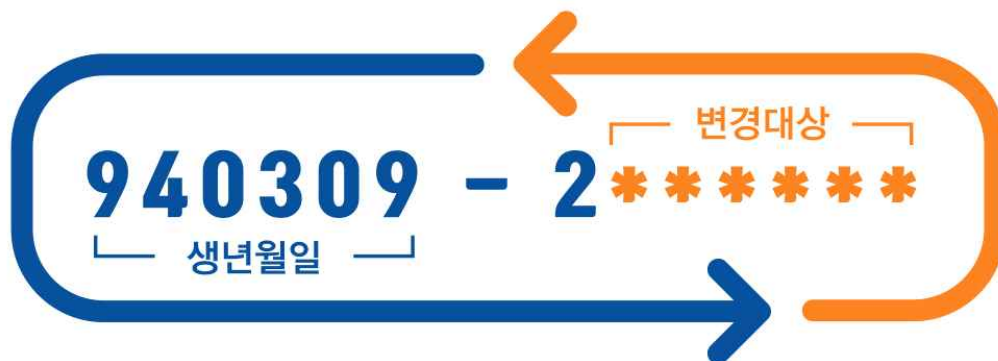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 044-205-6632~6)

- 신청대상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으신 분 ※ 보이스피싱, 신분도용, 가정폭력 등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누리집(www.rncc.go.kr) 변경절차 안내 참조
- 제출서류 :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
※ 판결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보호시설입소 확인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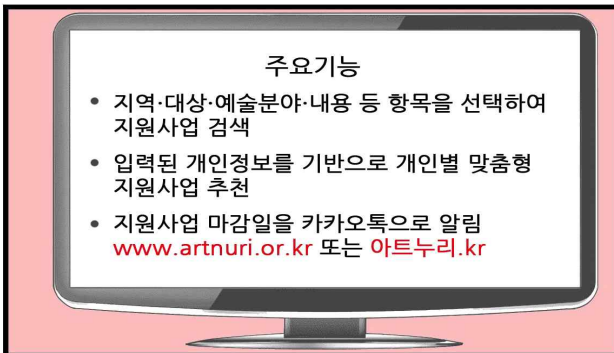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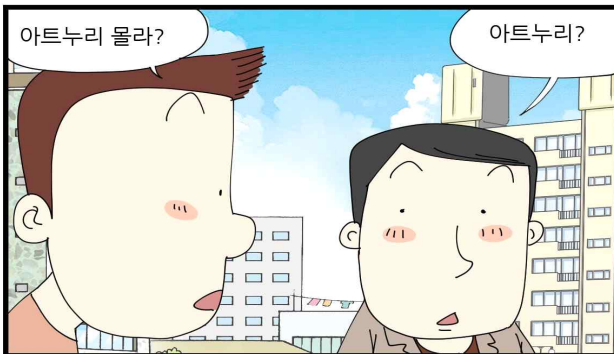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변경으로
2차 피해에서 벗어나세요!



2021년 7월 국정홍보만화

- 예술지원사업 종합안내 사이트 '아트누리' -

예술지원사업 종합안내 사이트 '아트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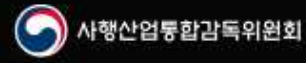
2021년 7월 국정홍보만화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20%로 인하됩니다.



불법도박 금지 및 신고 안내

(자료제공: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홍보과 ☎02-3704-0554)



온라인 올라미! 당신을 노립니다

온라인 도박(금전거래 등)은 불법

순간의 호기심이 미래를 빼앗아 갑니다



불법도박신고센터
(포상금 최대 5천만원)

1855-0112

도박문제 전문 상담
(365일 24시간 운영)

1336

하반기 농식품분야 달라지는 주요 제도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 ☎ 044-201-1317)

2021 하반기 달라지는 농식품 제도!

농림축산식품부

양질의 동물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시행일: 2021년 8월 28일

(현행)
민간단체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

▼
(개정)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 농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 발급

다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표시 의무화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p>버섯류</p> <p>예시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p>	<p>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p> <p>예시 "세척 후 드세요."</p>	<p>신선편이 농산물</p> <p>예시 "세척 후 드세요"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p>
---	---	---

2021년 10월 14일부터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식품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 문구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시행일: 2021년 하반기 완공 시

- 혁신밸리 내 청년창업 보육센터 현장교육 실시
- 스마트팜 실증단지에서 기업·연구기관의 실증·테스트, 빅데이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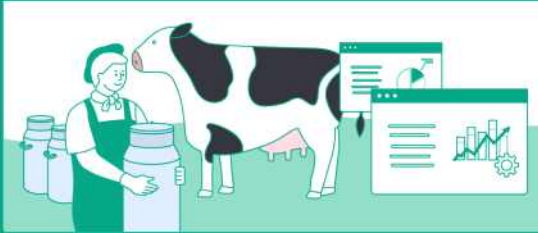
2018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순차적으로 완공되기 시작하여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021년 하반기: 경북 상주, 전북 김제
2022년 상반기: 경남 밀양, 전남 고흥

농림축산식품부

축산 관련 종사자 온라인 교육시스템 개선

시스템 재구축 및 서비스 개시 : 2021년 10월



코로나19, 가축전염병 등 발생으로 인한
집합교육 중단에 대비하여
연중 전 과정의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2021년 10월부터 '통합교육정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농업인안전보험 산재보험 대상 피보험자 범위 확대

시행일 : 2021년 6월 1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어선원재해보험법」 가입자라도
해당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 자격이 확대됩니다.

비료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비료 품질관리 강화

시행일 : 2021년 8월 12일



중금속, 염분 과다 등 부정·불량비료에 의한
토양오염 및 작물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상으로 유통·공급되는 비료도 공정규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수입제한 및 위해성 검사대상을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에서
모든 비료와 그 원료로 확대합니다.

농식품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위한 '스마트 스튜디오' 운영 확대

시행일 : 2021년 하반기



온라인 직거래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영세농업인을 위해
상품페이지를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스마트 스튜디오를 확대(1개소 ▶3개소) 운영합니다.

* 스튜디오 및 희망 콘텐츠 신청 : 온라인 예약페이지(<http://at-studio.kr>)
* 수도권 외 전남, 경북(2개소) 확대 운영

동물등록 자진신고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044-201-2384)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자진신고 7.19.~ 9.30.
집중단속 10.01.~10.31.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진신고란?

- 🐾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자진신고 대상

[동물등록]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변경신고]

- | | |
|--------|-----------------------------------|
| 10일 이내 |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 30일 이내 |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 | -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 |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 |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 |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자진신고 방법

[동물등록]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변경신고]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반드시 시·군·구청을 방문하여야 함

**미등록견은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자체 관련 부서 (국번없이)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로 문의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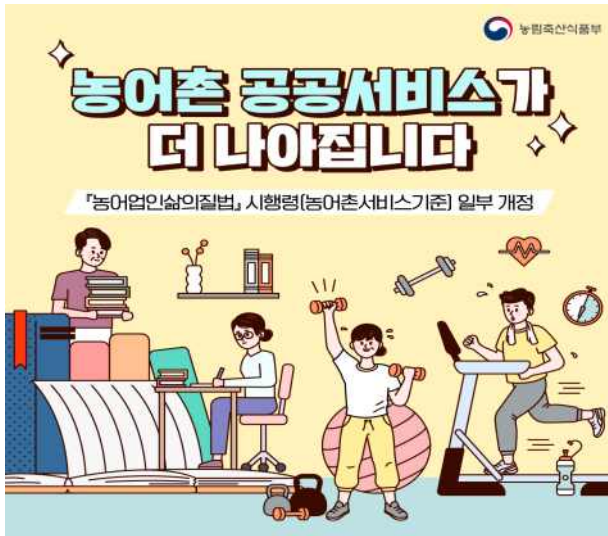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044-201-1518)



막걸리 빚기 국가무형문화재 되다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 044-201-2136)

막걸리 빚기 국가무형문화재 되다



농림축산식품부

지금은(막) 거르는(걸리) 우리 술!

막걸리

맛과 향이 일품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온 술

역사

-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술
- 삼국시대: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막걸리
- 고려시대: 「동국이상국집」의 백주
- 조선시대: 「춘향전」, 「광재물보」의 목걸리, 막걸니



농림축산식품부

방법

- 쌀을 씻어 고들고들하게 된밥을 지어 식힌 후, 술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발효제 누룩과 물을 넣고 2~3일 간 발효시켜 체에 걸러내는 과정으로 만들

특징

- 김치, 된장과 같이 각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 먹던 발효음식의 하나로, 조선 시대까지 막걸리는 집집마다 가양주로 빚어 집안 특유의 술맛을 유지

농림축산식품부

최근

막걸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빚는 작업 자체는 물론
생업과 의례, 경조사 활동 등에서 나누는 전통 생활습관까지

**막걸리의 모든 것이 문화재청에 의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막걸리는 우리 것이여~



농림축산식품부

**막걸리는 대한민국
대표 전통주입니다.**

우리 것을 지키고
우리 술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ASF 차단 울타리 「출입문 닫기」 캠페인

“문 닫고, 소독하고, 신고하고”

(자료제공: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 ☎ 044-201-7499)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막아 우리 돼지 함께 지켜요.
- 우리 정부는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고자 멧돼지 차단 울타리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산, 도로 등을 지나다가 열린 울타리 출입문이 보이면 꼭 닫아주세요.
- 울타리 출입문을 닫는 것만으로도 멧돼지의 이동을 막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북부 및 강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을 방문하시거나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특히 등산 등 산림지역 방문 후 옷·신발을 깨끗이 세척하여 주시고,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 장마철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출되어 울타리 밑부분에 구멍이 나거나 찢어져 훼손된 울타리를 발견하시면 반드시 신고하여 주십시오.

< 차단 울타리 긴급대응 안내전화 >

- 경기권 : 031-790-2841(한강유역환경청)
- 강원권 : 033-760-6062(원주지방환경청)
- 장마철 24시간 신고전용 : 041-950-5975(국립생태원)

ASF 차단 울타리 「출입문 닫기」 캠페인
“문 닫고, 소독하고, 신고하고”

주민과 출입인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차단 울타리 출입 후
출입문을 반드시
닫아 주세요



출입 후에는
반드시
소독해주세요



훼손(뺏어지거나 구멍난 곳 등)된
울타리는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 ASF 차단 울타리

야생멧돼지의 이동을 차단하여 아프리카열병(ASF)의
전파·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중요 시설

‘약속 챌린지’

(자료제공: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02-2100-6329)

세상 모든 가족과 함께하기로, 약속해요!

#약속챌린지

약속 챌린지란?

우리 주변의 모든 다양한 가족들을 편견 없이 존중할 것을 약속하는 대국민 캠페인으로
우리 사회의 가족 다양성을 포용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참여 방식

1. 약속을 뜻하는 수어동작 사진찍기
*2인 참여 시 함께 약속하는 손동작으로도 참여 가능
2. 약속 메시지 남기기 “**세상 모든 가족과 함께하기로, 약속해요!**”
3. 필수 해시태그 남기기 #세상모든가족함께 #약속챌린지
4. 함께 약속할 친구 지목
*약속 챌린지를 함께 하고 싶은 친구(지인) 2인 이상 태그 인스타그램 업로드



1인 참여 시



2인 참여 시

챌린지에 참여하신 분들 중 일부에게 “약속 반지”를 드립니다

* 약속 반지는 다양한 색상의 실이 연결되어 하나의 반지가 되듯, 다양한 모습의
가족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여성가족부

평등을 일상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확대

(자료제공: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100-6404)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카오톡에서 네이버까지 알림 수단이 확대 됩니다.



- 수신 대상** - 19세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가구
- 수신 시점** - 성범죄자 전입 전출 시
- 수신 채널** - 카카오톡(1차), 네이버 앱(2차)
- 수신 내용** - 성범죄자 신상정보 (성범죄자 성명, 실거주지, 성범죄 요지,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

유의사항

- 19세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세대주에게 발송됩니다.
- 카카오톡 모바일고지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를 네이버앱 모바일고지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가입이 필요합니다.
- 모바일고지서 열람 시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모바일고지서를 열람하면 종이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21년 1월 ~)
-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정보통신망 등 악용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별도 신청(정보통신망 고지)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고지서 미확인 시, 네이버 앱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 모두 미확인할 경우 종이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행 안내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 ☎ 044-201-4179)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아직도 확정일자 받으러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세요?
이제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 신고 시행일 |

2021년 6월 1일(화)

| 신고 의무인 |

임대차계약당사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1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 간주

| 신고 대상 |

-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 ②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③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 신고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신고 또는
주택 소재 신고관청(읍·면·동·출장소) 방문신고

| 제재 사항 |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 5월 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88-014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또는
관할 기초지자체(읍면동)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신청 안내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 ☎ 044-201-4178)

임대인과 임차인 간 법률적 분쟁 해결제도

한국부동산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GO!

Q1. 어떤경우에 이용하면 좋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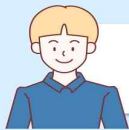
전세계약이 자동연장되었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올려달래요.

임차인이 3개월 넘게 임대료를 내지 않아요.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Q2.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 임차인
누구나 신청 가능**



임대차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간편한 절차

간편한 신청절차로
(온라인, 우편, 팩스, 방문)
신청가능

신속한 해결

조정절차 개시일로
부터 60일 이내
모든 절차가 종료

Q3. 누구의 도움을 받나요?

전문가 참여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이
조정위원으로 절차에 참여



Q4.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저렴한 비용

(조정 목적의 값에 따라 1~10만원)
소액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은 수수료 면제

Q5. 어떻게 신청할까요?

1. 온라인 신청



- 1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접속
www.reb.or.kr
- 2 페이지 내, 오른쪽 하단
임대차분쟁위원회 배너 클릭
- 3 주택 | 상가건물에 맞춰 아래버튼 클릭
- 4 연결된 페이지에서 조정신청 클릭!



2. 유선상담

임대차문제에 대한 법률 상담과 조정신청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전화로 받을 수 있어요.

서울 02-3394-9871~3

세종 044-868-8341

경기 031-902-3573~4

전북 063-276-8022~3

강원 033-244-9793~4

경북 054-275-9771~2

누구나! 언제나!

간편

신속

튼튼

저렴

한국부동산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주세요!



REB 한국부동산원

우리집 관리비 절약의 시작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80)



입주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절약의 시작!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이란?

단지정보, 관리비정보, 유지관리 이력정보,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등 공동주택 관리정보를 공개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제공하여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주요 공개정보

단지정보	관리비정보	유지관리 이력정보	회계감사 보고서	전자입찰 시스템
기본정보 및 관리시설정보 공개 ↓ 입주민에게 정확한 단지 및 관리시설 정보제공	공용관리비 등 47개 항목 공개 ↓ 관리비내역 확인 및 유사단지와 항목별 관리비 비교·검증 가능	공사내용 등 유지관리이력 공개 ↓ 장기수선항목 적기보수를 통한 장수명화로 사회적 비용 절감	회계감사결과 및 감사의견 공개 ↓ 관리업무 전반의 외부회계감사로 관리 업무 적정성 진단	유지보수, 도색 등 사업자 선정 시 무료시스템 제공 ↓ 입찰 전과정 및 결과공개로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비 집행유도



어떻게 이용하나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 접속 또는 휴대폰에서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을 이용하면 누구든지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는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한국부동산원
KOREA REAL ESTATE BOARD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 044-202-7927)

○ 고용보험은 평상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기금으로 원치않은 실업을 한 경우 실업급여 등으로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1. 7. 1.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1.7.1. 적용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초·중등)

1. 적용범위		
적용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
주요 적용제외		- 노무제공계약 월평균소득 80만원 미만자('22.1월부터 합산 가능) - 만65세 이상(단, 만65세이전부터 고용보험 계속 가입중인 자는 적용 대상)
2. 보험료율 및 수급요건		
보험료율		- 실업급여 1.4%(특고 0.7%, 사업주 0.7%)
수급요건	기여요건	-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이직사유	- 비자발적 이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포함)
	기 타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3. 구직급여 지급		
지급수준		-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지급기간		- 120일~270일
소득활동 인정		- 수급기간 중 소득 발생시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 지급
4.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기여요건		-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충족
지급수준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지급기간		-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분야별정책 ▶ 고용안전망 ▶ 전국민고용보험

**‘청년세대에게 답답하고 불리한 법’은
사이다처럼 속 시원한 ‘법령정비’로 바꿔요**

(자료제공: 법제처 대변인실 ☎ 044-200-6517)



법령정비에 직접 참여하고 싶다면?

국민참여입법센터 ▼

검색

렌터카, 차량 사고 시 수리비 등 과다 청구로 피해 많아

- 수리비 증빙자료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개선 필요 -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정보교육국 ☎ 043-880-5745)

최근 3년간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별 접수 현황



* 연료금: 차량사고에 따른 소비자배상책임을 한정하기 위해 부담하는 금액 ** 유차료: 렌터카 수리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한 데 따른 영업 손실 배상 비용

구분	2018	2019	2020	계
렌터카 관리 미흡	14	18	22	54(6.2)
차량 회수 관련	7	15	15	37(4.3)
연료대금 정산 관련	8	8	6	22(2.5)
기타*	17	20	33	70(8.0)
합계	263	276	342	871(100.0)

* 기타: 과태료(주차위반 등), 만납한 렌터카에 두고 내린 물품 미반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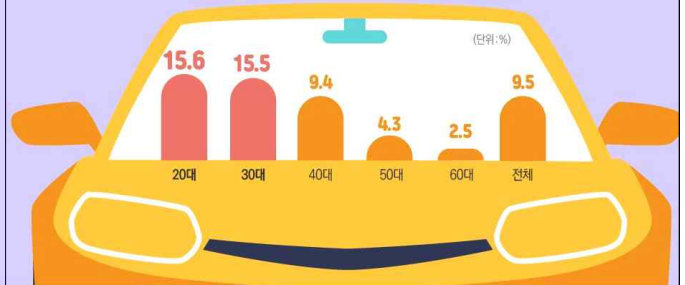
렌터카 이용자의 9.5%가 사고 경험, 20~30대의 사고 발생률 높았어요

최근 1년 이내에 단기 렌터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24명

소비자의 9.5% (50명)

차량 사고 발생 경험있어요

연령별 단기 렌터카 사고발생 경험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차량사고 발생 시 사업자로부터 받고 싶은 증빙자료는?

렌터카 이용자는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원했어요



* 수리견적서: 차량을 수리하기 전에 수리할 부분에 대한 부품값과 공임을 명시한 서류
** 정비명세서: 수리가 완료된 차량의 수리부분에 대한 부품값과 공임을 명시한 서류

현행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에는 소요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합니다”라고만 기재

수리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관련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렌터카 수리에 따른 휴차료의 과다 청구 많아요

렌터카 사고 경험자 50명 중
차량 수리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한 영업 손실 배상에
해당하는 휴차료를 지불한 소비자 56.0%(28명)

이 중 휴차료 산정기준은?



다수의 렌터카 사업자들이 실제대여요금보다 비싼 기준대여요금이나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휴차료를 청구하면서 소비자들이 과도한 비용을 지급했어요

* 기준대여요금: 차량 모델별로 정해 둔 시세에 따른 대여료 (예: 소나타 000원, 그랜저 000원 등)
** 정상요금: 할인 등이 적용되지 않은 대여료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consumer.go.kr, 舊 행복드림)’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

CCTV 설치·운영 관련 주의사항 안내

(자료제공: 개인정보위 조사1과 ☎ 02-2100-3117)

- 우리 사회 곳곳에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안내판 설치 등 법에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CCTV 관련 주요 위반 사례

사례	위반 조항	처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CCTV 설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2항	5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안내판에 법정 고지사항(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을 누락한 사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4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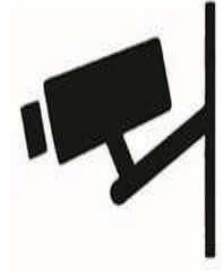
- 이와 관련하여 CCTV를 설치·운영하고자 하시는 주민께서는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다음의 주의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설치·운영 관련 주의사항>

-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만 CCTV 설치 가능
 -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는 설치 금지!!
- 반드시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 성명·연락처 등 안내(붙임 참고)

- CCTV 설치·운영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 '법령정보→지침·가이드라인'에서 열람 및 내려받기 가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 설치안내



- 설 치 목 적 :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
 - 설 치 장 소 : 출입구 천장, 엘리베이터, 00
 - 촬 영 범 위 : 출입구, 엘리베이터 및 00
 - 촬 영 시 간 : 24시간 연속 촬영
 - 관리책임자 : 000과 김00 (02-000-0000)
-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아래 수탁관리자 표시)
- 수탁관리자 : 000업체 박00 (02-000-0000)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오픈

(자료제공: 국세청 세정홍보과 ☎ 044-204-3166)



정부혁신
보다 나은 국세청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 **5% 할인** 구매!



P 세금포인트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의
세금 납부액(소득세 · 법인세)에 따라 부여

S 세금포인트 조회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조회」

P TAX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여러분의 세금포인트 사용이 중소기업과 대한민국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여름철 산사태! 이것만 알고 있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산림청 대변인실 ☎ 042-481-4074)



산사태로부터 안전하려면...



집주변의 산사태위험 점검

배수로를 확인하고 짐목 등 위험요인을 제거한다.



기상 및 산사태 정보 확인

호우·태풍 등 기상정보와 산사태 예·경보를 확인한다.



대피장소 확인

대피소와 비상연락처를 미리 알아둔다.



구조요청

인명피해가 우려될 경우 119에 구조를 요청한다.



산사태 발생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119) 또는 119로 연락해주세요.

정부혁신
보다 나은 산림청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우리의 나무가 아플 때는 나무병원을 찾아주세요 !

(자료제공: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042-481-4064)

- ☐ 2018년 6월 28일부터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 ‘나무의사 제도’는 우리의 나무가 수목진료전문가(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에 의해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한 것으로, 기존 비전문가에 의해 발생하는 부적절한 약제살포 등의 문제를 개선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 나무의사 제도의 시행으로 수목에 대한 진단·처방 및 예방·치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 ☐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우리의 나무가 아플 때는 나무병원을 이용해주세요.
- 우리 지역의 나무병원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 (<https://fec.fores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나무가 아플 때는 나무병원을 찾아주세요!



“우리의 나무들이 건강해야 우리의 삶도 쾌적합니다.”

우리의 삶에 맞닿아 있는 소중한 나무!

나무는 해충이나 병원균으로 병이 들거나 잘못된 농약 사용, 자연재해로 인해 훼손되기도 하는데요

나무가 아플 때는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나무병원을 이용하세요.

나무병원이 필요한 이유?



“나무를 건강하게 해요”

안전하고 적합한 약제 처방으로 나무의 건강을 지켜 우리 집과 함께 사는 자연을 보호해줘요.



“나와 가족을 지켜줘요”

나무의사 처방 없이 하는 방제는 토양, 나무 식재 상황 등 정확한 진단 없이 이뤄져요.
의사와 약사에게 처방받지 않은 약은 내 가족에게 위험하듯이 우리를 둘러싼 자연을 위협해요.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병원이에요”

나와 가족의 삶을 맡긴 집을 품고 있는 자연 숲. 나무의 위험은 가족의 위험이 돼요. 나무의사 전문 진료로 제대로 된 처방을 받아 건강해진 나무는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요.



나무의사 나무병원 상식

우리는 아프면 전문병원을 찾아가고 건강 검진을 받아요. 우리 삶과 함께 숨 쉬는 자연도 건강해지려면 나무의 정확한 진료가 필요해요. 나무병원의 전문 진료와 치료에는 다소 비용이 발생하지만, 결국 나무의 건강은 나와 내 가족, 삶의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전문 수목진료 기관은?



수목진료 전체
(수목피해 진단·처방·예방·치료)



※ 2018.6.28~2023.6.27, 5년간 한시적 운영
수목진료 중 처방에 따른 약제살포
(나무의사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치료 담당)



나무의사 나무병원법 추가 상식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 또는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가 아닌 자가 수목을 대상으로 약제살포 등 수목진료를 수행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나무의사 처방제란?



나무병원이 수목진료 중 농약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나무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도록 하는 제도



나무의사는 직접 수목피해 현장 방문



진료사항 진료부에 기록



농약사용시 처방전 의무 발급



나무의사 나무병원법 추가 상식

처방전 없이 농약을 사용하거나 처방전과 다르게 농약을 사용한 나무병원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나무의사는 자격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궁금해요 Q&A

Q1 수목 진료가 무엇인가요?



A 나무가 어디가 아픈지 진단, 처방, 치료하는 모든 과정입니다.
(농작물 제외)

Q2 아파트 단지 나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A 나무병원을 이용하세요.
아파트 단지의 나무는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나무병원만이 진료할 수 있습니다.

Q3 조경회사나 실내소독업체가 그냥 하면 안 되나요?



A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이 없거나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할 경우 나무치료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Q4 우리지역 나무병원 어디에 있나요?



A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림사업업관리시스템' (<http://ec.forest.go.kr>)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 조심하세요!

(자료제공: 질병관리청 미래질병대비과 ☎ 043-219-2956)

☐ 물을 자주 마십니다.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십니다.

※ 신장질환 등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합니다.

☐ 시원하게 지냅니다.

- 샤워를 자주 합니다.
-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 외출 시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합니다.

☐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합니다.

- 가장 더운 시간대(낮 12시~오후 5시)에는 휴식을 취합니다.

※ 날씨가 갑자기 더워질 경우,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를 낮춥니다.

☐ 매일 기온을 확인합니다.

- 매일 기온, 폭염특보 등을 확인하여 폭염 시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이렇게 준비하세요!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 마시기

*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모자)
-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 (낮 12시~오후 5시)에는 휴식하기

*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강도 조절하기

매일 기온 확인하기



- 매일 기온, 폭염특보 등을 확인하여 폭염 시 야외활동 자제하기



온열질환은 작은 실천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KDCA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 독려 대국민 홍보

(자료제공: 질병관리청 대변인실 ☎ 043-719-7783)



접종대상		사전예약시기	접종 일시	백신 종류	접종 기관
6월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	60세~74세 어르신 (화이자 백신 사전예약 안내 문자메시지 수신자 대상)	6월 23일 0시~ 6월 30일 18시	7월 5일~ 7월 17일	화이자	예방접종센터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등 (6월 예약 조기마감에 따른 미예약자 등)	6월 28일 0시~ 6월 30일 18시	7월 5일~ 7월 17일		
교육·보육 종사자, 대입수험생	고교 3학년 및 고교 교직원	관할 교육청과 예방접종 센터 간 일정 조율 후 학교별 접종	7월 19일 주	화이자	예방접종센터
	교육·보육 종사자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 교직원 및 돌봄인력)	7월 중	7월 중		위탁의료기관
	고교 3학년 제외 기타 대입수험생 (재수생 등 및 학교 밖 청소년 중 대입수험생)	7월 말	8월 중		
50대 장년층 (50세~59세)	55세~59세	7월 12일 주	7월 26일 주	백신 도입량과 시기 고려하여 확정 예정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50세~54세	7월 19일 주	8월 초		
40대 이하* (18세~49세)		8월 ~	우선 접종자의 접종이 완료되는 8월 이후	백신의 도입량 및 시기를 고려하여 본인 선택에 따라 결정 후 접종	

* 40대 이하는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부터 사전예약 순서에 따라 접종 실시

[접종 사각지대 해소 계획]

-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제약으로 접종 참여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대상군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
- 지자체별 특성 및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자체 계획에 따라 예방접종 시행
- 24시간 가동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한 자체 접종 통해 종사자 접종편의 도모

안전하게 갯벌을 즐기는 방법! 안전수칙 지키기

(자료제공: 해양경찰청 대변인실 ☎ 032-835-2312)

○ 현 황

-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가 상대적으로 쉬운 야외 활동이 각광을 받으면서 탁 트인 바다에서 즐기는 갯벌 체험이 인기를 얻고 있음
- 갯벌 활동자 증가와 함께 고립 등 안전사고도 빈발해 인명피해로 이어짐

구 분	2021.5월 현재	2020년	2019년	2018년
사고 발생건수	34	57	56	43
사망·실종자 수	5	6	1	8

○ 안전수칙 홍보

1	간조, 만조 시간 확인 후 간조 1시간 전 알람 설정하기 → 간조 1시간 전 갯벌 체험을 종료하고 나와야 밀물 속도에 앞서 육지에 도착 가능
2	휴대폰은 방수팩에 넣어 호루라기와 함께 가져가기 → 위험을 감지하면 주변에 알리고 즉시 구조기관에 신고하기 * 올해 3월, 남성 2명이 평택 제부도 인근 갯벌에 들어가면서 차량에 휴대폰을 두고 내려 신고도 하지 못하고 사망한 상태로 발견
3	구명조끼 꼭 착용하기 →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연안사고 사망자 비율
4	나홀로 갯벌 출입하지 않기, 항상 2인 이상 다니기 → 혼자 갯벌에 있다가 위험에 대응하지 못하고 사망, 실종되는 사건 빈번하게 발생
5	빨에 빠졌을 땐 몸을 뒤로 젖혀 자전거 페달 밟듯 움직여 빼내기 → 서서 발을 빼려고 하면 더 깊이 박히게 되며, 누운 자세로 발을 빼내는 것이 쉬움
6	짙은 안개 등 기상 악화 시 갯벌에 들어가지 않기 → 특히, 짙은 안개가 끼면 바다와 육지가 구분되지 않아 길을 잃기 쉬움

갯벌 안전수칙



간조, 만조 시간 확인 후
간조 1시간 전 알람 설정하기



휴대폰은 방수팩에 넣어
호루라기 와 함께 가져가기



구명조끼
꼭 착용하기



나홀로 갯벌 출입하지 않기,
항상 2인 이상 다니기



뱀에 빠졌을 땐 몸을 뒤로 젖혀
자전거 페달 밟듯 움직여 빼내기



짙은 안개 등 기상 악화 시
갯벌에 들어가지 않기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습니다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 044-202-5781)



○ 누리집 접속방법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메인화면 우측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습니다> 클릭
(<https://e-gonghun.mpva.go.kr>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배너)

2021년 8월의 독립운동가 이길용 · 송진우 · 여운형 선생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 044-202-5780)

마라톤 우승의감격, 일장기 말소로 표현하다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이길용(1899~미상), 송진우(1890~1945), 여운형(1885~1947) 선생을 2021년 8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이길용, 송진우, 여운형 선생은 민족정신을 되살리고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시행한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사건의 실행자와 언론사 책임자로 활약하신 분들이다.

1936년 8월 9일 손기정이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함께 출전한 남승룡이 3위에 입상하였다. 손기정과 남승룡의 마라톤 제패로 조선 전역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일본어 발행 신문들은 일본인으로서 손 기테이(손기정의 일본어 발음)를 칭송하였지만, 『동아일보』 등은 세계 유수의 민족과 겨루어 당당히 우승한 ‘조선인’ 손기정을 강조하였다.

엄청난 열기에 휩싸인 우승소식이었지만 정작 한글 신문에 손기정의 수상 사진이 처음으로 실린 건 8월 13일이였다. 『조선중앙일보』 1936년 8월 13일자 조간 4면 우측 하단에 처음 실렸다. 우승한 손기정의 얼굴도 자세히 알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데 가슴에 아무런 표식도 없었다. 당시 체육부 기자인 유해봉은 붓으로 일장기를 지운 흔적이 있는 사진을 사진부에 전달했고 사진부 기자는 모른 척 넘어갔다. 총독부의 검열 담당자도 모르고 넘어갔다. 같은 날 조간에 『동아일보』도 이 사진을 실었지만 흐릿한 원본 사진으로 인해 일장기를 고의로 지웠다고 판단하기는 모호했다. 첫 사진 게재 때는 총독부 검열당국은 신문사들의 의도를 몰랐다.

이후 동아일보는 8월 26~28일까지 올림픽 활동사진 상영회 개최 광고를 위해 시상식에 선 우승자 손기정과 3위 입상한 남승룡 사진을 8월 25일 신문에 게재했고 여기서 손기정 가슴의 일장기를 이길용이 주도하여 말소하였다.

당시 동아일보 체육부장이었던 이길용은 오랫동안 민족차별을 하다가 손기정 선수가 우승을 하니,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우승으로 대서특필하는 모양을 도저히 참고 보기 어려웠다고 회고했다.

이렇게 민족차별에 대해 강한 분노를 느끼고 있던 이길용이 일장기 말소를 주

도하였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약간 진술이 엇갈리긴 하나 이길용은 화가이자 사진부 기자였던 이상범에게 사진을 넘기면서 가슴의 일장기를 흐리게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지시를 받은 이상범은 이길용이 일장기를 지워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회고하였다.

일장기가 말소된 사진을 본 조선총독부의 검열 당국자는 바로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약 이틀 동안 사건의 전모를 밝히려고 연행자들에게 모진 고문을 자행하였다. 경찰이 연행자들에게 고문함으로써 얻으려 한 것은 송진우 등 동아일보 고위 간부들의 지시 여부였다. 하지만 실제 임원들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사진이 실린 사회면의 부장인 현진건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8월 27일 오후 5시에 조선총독부는 송진우 사장을 호출하여 무기정간을 통보하였다.

경찰은 『동아일보』를 수사하면서 다른 신문도 조사하였다. 시상식에 올라선 손기정과 남승룡을 실은 사진은 『동아일보』 외에 『조선중앙일보』 뿐이었다. 『동아일보』 조사와 정간 처분이 끝난 후인 9월 1일 『조선중앙일보』 기자 유해봉이 경찰에 소환되었다. 경찰의 취조가 진행되는 동안 『조선중앙일보』도 자체 조사를 벌여서 8월 13일자 사진의 일장기를 사진을 지운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조선중앙일보』는 9월 5일자 석간에서 당국의 처분이 내리기 전에 자진 휴간을 선언하였다.

일장기 말소사건은 총독부의 한글 신문 통제에 큰 전환점이 됐다. 총독부는 문화정치의 산물인 한글 신문에 대해 강경책으로만 대응할 수는 없었던 시기에 신문사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총독부는 송진우를 비롯한 임원진을 강제 면직시키고 관련 업무 종사를 못 하도록 명령했다. 이후 동아일보는 복간을 위해 총독부와 10개월의 장기간의 협상을 했으나 총독부의 ‘개혁’ 요구를 받아들이고 1937년 6월 2일자로 복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자진 휴간에 들어갔던 조선중앙일보사는 한 달 정도 쉬고 복간할 계획이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우선 총독부가 속간을 허락하지 않아서 ‘반강제적’인 휴간이 계속되었다. 거기에 재정상황에 따른 내분으로 사장인 여운형의 사퇴 문제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조선중앙일보』의 진로에 대한 충돌이었다. 한쪽은 새로운 자본을 투입하여 신문기업으로서 위치를 탄탄히 하기 위해 총독부의 개선 요구를 현실적으로 인정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여운형은 민중을 계몽하고 민족의 의사를 최소한이라도 표현할 수 없다면 “『조선중앙일보』의 사명이 다했다”고 생각했다. 여운형은 자신의 사퇴문제로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총독부의 타협

책을 거부하고 속간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조선중앙일보』의 역사성을 지켰다. 『조선중앙일보』는 1937년 11월 5일자로 신문지법에 규정된 발행 허가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폐간되었다.

민족운동이 와해되고 서서히 꺼져가던 시점에 일장기 말소사건은 민족에 새로운 의지와 자부심을 심어주었다. 일본인 손기테이가 아닌 조선인 손기정으로 조선민족의 자부심을 알리고자 한 이길용을 비롯한 기자들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임원들인 송진우, 여운형의 활약은 암울해진 1930년대 식민통치에 조선인들에게 자부심이 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들의 공훈을 기려 이길용 선생에게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송진우 선생에게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그리고 여운형 선생에게 2005년 건국훈장 대통령장과 2008년에는 광복 이후 민족통일을 위한 헌신과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공로로 행정안전부 추천으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 첨부 】 관련 이미지 (출처 : 독립기념관, 국가보훈처)

	
이길용 선생	송진우 선생
	
여운형 선생	

※ 동 내용은 8월 이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신문 기사 등에 미리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1년 8월의 6·25전쟁영웅 송효석 대한민국 육군 소위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044-202-5715)

국가보훈처는 송효석 육군 소위(1928.7.15. ~ 2019.9.4.)를 '2021년 8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

- 송효석 일등상사(당시 계급)는 제1사단 12연대 3대대 근무하던 중, 적의 전차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아군의 진지를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특공대 제3조장에 임명되어 특공대 1,2조와 함께 작전을 진행하여 은폐된 적 전차 4대를 파괴하고 1대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 1928년 7월 15일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영풍리에서 출생한 송효석 육군 일등상사(당시 계급)는 1946년 11월 15일에 육군에 입대, 제1사단 12연대 3대대에 근무하였다.
- 1950년 8월 8일 제11연대의 지원임무를 마치고 원대복귀한 제12연대 3대대는 다음날 적에게 201고지와 369고지를 빼앗긴 제13연대 1대대를 증원하기 위해 다시 출동했다. 수암산 쪽으로 진출한 제3대대는 06시를 기해 369고지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으나 기동로가 제한되고 심한 경사로 인해 진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적의 전차가 아군 진지와 공격 제대에 대해 치열한 포격을 가해와 공격이 일단 좌절되었다.
- 제12연대장은 적의 전차를 파괴하지 않고는 369고지와 아군 진지를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특공대를 3개조로 편성하여 투입하였는데 송효석 일등상사는 특공대 제3조장으로 참여하여 은폐된 적

전차 4대를 파괴하고 1대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 특공대의 이와 같은 활약으로 적의 위협을 모면한 제12연대 3대대는 369고지 일대에 숨어있던 잔적을 공격함으로써 적은 남침을 중단한 채 수세에 몰렸고, 제2대대도 201고지로 무사히 진출하여 무명고지에 대한 야간공격을 감행, 이를 점령 확보할 수 있었다.
- 송효석 일등상사는 이러한 공로로 1950년 12월 30일 화랑무공훈장을 수여 받았고, 육군 소위로 2계급 특진했다. 이후 북진과 1.4후퇴 그리고 1953년 휴전때까지 1사단 특공대장 등으로 전선을 누볐으며, 휴전 이후 전남병사구사령부에서 복무하다 1958년 11월 30일 전역했다.



송효석 육군 소위
(1928.7.15.~2019.9.4.)
상훈 : 화랑무공훈장(1950.12.)

※ 동 내용은 8월 이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신문 기사 등에 미리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1년 8월의 현충인물 ‘김순애 애국지사’ 선정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 042-820-7065)

- 국립대전현충원은 2021년 8월의 현충인물로 김순애 애국지사를 선정했다.
- 김순애 지사는 1889년 황해도 장연에서 태어나 1919년 남경에서 독립운동가 김규식 지사와 결혼한 후 중국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상해에서 1919년 1월 신한청년당 이사로 선임되었고, 상해와 만주, 국내를 왕래하며 한국 청년에게 독립의식을 고취시키며 광복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 등을 주장하며 활약했다.
- 김순애 지사는 1920년 1월 상해에서 조국광복운동을 위한 의용단을 발기하는데 참여했고, 1919년 7월 상해에서 조국독립운동에 여성들도 참여할 것을 목적으로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하여 회장으로 피선되었다. 대한애국부인회에서 김순애 지사는 한국 지도의 제작 및 태극기의 제작 보급, 임시정부의 회의장 준비 등 임시정부의 선전을 민중의 저변으로 확대시키는 독립운동을 담당했다.
- 1943년 2월 임시정부 집회실에 모여 한국애국부인회 재건대회를 개최했고, 이날 김순애 지사가 주석으로 선출되었다. 재건된 한국애국부인회는 방송으로 국내외 동포 여성들에게 각성을 촉구 호소하거나 위문금품을 거두어 광복군을 위문하는 등 독립투쟁에 앞장섰다. 나아가 해외 각지의 한인여성단체들과 긴밀히 연락하여 임시정부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두텁게 하는데 공헌했다.
- 김순애 지사는 1945년 11월 광복 후 임정요인으로 김규식 선생과 함께 환국했고, 1946년부터 1962년까지 정신여자중고등학교 재단 이사장과 이사로 활동하며 여성교육에 매진했다. 정부는 고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1977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고,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4묘역에 안장하여 그 업적을 기리고 있다.



김순애 애국지사



묘소사진
(독립유공자 제4묘역 313호)

※ 동 내용은 8월 이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신문 기사 등에 미리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8월의 호국인물 박희동 공군준장

(자료제공: 전략기획부 기획홍보팀 ☎ 02-709-3104)

전쟁기념관은 8월의 호국인물로 박희동 공군준장을 선정하였다.

박희동 준장은 1924년 3월 7일 충청남도 논산에서 태어났다. 1940년 일본군 소년 비행병 과정을 통해 조종술을 배운 그는, 1948년 7월 조선경비대 항공부대에 항공병 제1기로 입대하여 국군 최초의 항공기인 L-4 연락기를 조종하였다. 조종경력과 기량을 인정받은 그는 10월 25일 공군소위(사관후보생 제3기)로 임관하였고, 1949년 10월 1일 공군의 독립 창설에 기여하였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공군 최초의 전투기인 F-51D의 인수요원 10명에 선발되었다. 주일 미 공군의 이타스케[板付] 기지에서 불과 며칠간의 훈련만을 받고 F-51D 전투기와 함께 복귀한 인수요원들은 당시 공군의 유일한 전투조종사로서 크게 활약하였다. 박희동 대위(당시)는 복귀 다음날인 7월 3일부터 편대장으로서 낙동강 방어전투와 반격작전 등에서 근접항공지원에 참가하였다. 풍부한 전투비행 경험을 가진 조종사로서 1951년 제1전투비행대대장(소령), 1952년 제1전투비행전대 작전처장 및 제1교육비행대장(중령), 1953년 제10전투비행전대장 등을 역임하며 후방차단 작전과 근접항공지원 작전을 지휘하고 총 38회의 전투출격을 기록하였다. 휴전 이후에는 1959년 기술교육단장, 1962년 공군사관학교 교장, 1966년 공군대학 총장을 역임하며 공군 전력의 양성에 기여하고 1968년 준장으로 예편하였다.

박희동 준장은 국군의 첫 전투기조종사로서 을지무공훈장과 미국 비행훈장(Air Medal)을, 휴전 이후 공군 전력양성의 공적으로 충무·화랑무공훈장 등 다수의 훈장을 수여받았다. 1989년 7월 19일, 향년 65세를 일기로 별세하였으며,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 장군묘역에 안장되었다.

붙임1 박희동 준장 존영



※ 동 내용은 8월 이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신문 기사 등에 미리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